

어지러운 '난'

빛날 '난'

# 난장(亂場)에서 난장(爛場)으로...

## VII. 단오제 이어가기

### | 강릉단오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단오문화 전승기반 구축
3. 단오문화 콘텐츠 발굴
4. 조례제정 및 조직개선
5. 진정한 도시축제로의 발전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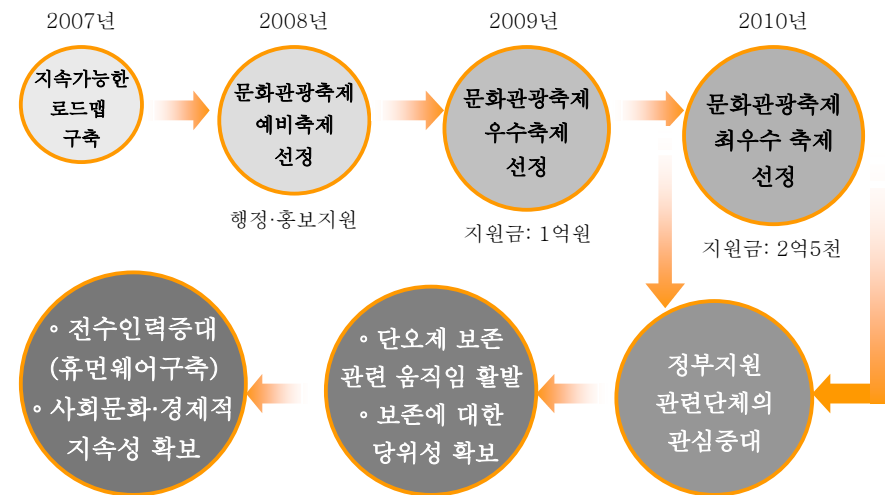
## 1. 기본방향

### ● 강릉단오제 로드맵

- 2005년 11월,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으로 선정되어 지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축제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었음
- 향후 세계인이 나누고 즐기고 향유하는 세계속의 민속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강릉단오제를 세계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게하여 축제를 전승보존하고 인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심사 및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고 홍보지원,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차원의 관심이 증대되고, 보존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음
  - 강릉단오제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전수인력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움직임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전수자이수자가 늘어나고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 문화관광축제 평가기준 및 지원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생적 전통축제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현재의 문화관광축제 평가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나름의 독특함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제도적 틀 내에서 강릉단오제가 충분한 지원을 받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국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및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함

<강릉단오제 문화관광축제 추진로드맵>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결과제

- 선행된 방문객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자문에 의해 강릉단오제가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될 수 있는 필요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면은 부각시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강릉단오제가 처한 현황과 강릉시의 비전, 세계적 변화추세·흐름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네 가지 선결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음
  - ① 단오문화 전승기반 구축
  - ② 단오문화 콘텐츠 발굴
  - ③ 조례제정 및 조직개선
  - ④ 진정한 도시축제로의 발전도모

<지속가능한 강릉단오제를 위한 선결과제>



## 2. 단오문화 전승기반 구축

### 1) 단오문화재 복원 및 전승 지원

- 대관령국사성황사, 굴산사지 등을 비롯하여 많은 단오관련 문화재가 강릉시 주관의 복원 및 정비계획에 있으나 실행력·추진력 부족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함
- 또한 단오문화재가 활용되는 시기는 ‘강릉단오제’ 본 기간과 신주빚기, 대관령국사성황제 등이 거행되는 전단오기간 뿐이며 평소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강릉단오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무형문화재의 고령화와 제도적인 지원부족으로 전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제도적 지원 현황>

구분	대상자	관련법	내용
의료급여	보유자 보유자 가족	의료급여법 제3조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학 점 인 정 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보유자 140, 전수교육조교 50, 이수자 30, 전수생 4~21학점 인정
산학겸임 교 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초·중등 교육법 제 22조와 동법 시행령 제 42조	초·중등학교의 전통문화 전문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출처: 문화재청 [www.cha.go.kr](http://www.cha.go.kr)

#### <전수자 지원 현황: 2007년 현재>

구분	전수자 구분	명	월별지원금 (1인당)
강릉단오제	보유자	3	1,000,000
	조교	10	500,000
	단체전승금	-	1,000,000
강릉농악	보유자	2	1,000,000
	조교	4	500,000
	단체전승금	-	1,000,000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보유자	1	600,000
	조교	3	300,000
	단체전승금	-	400,000
학산오독떼기	보유자	4	600,000
	조교	4	300,000
	장학생	4	100,000
월간 지원 총액			238,800,000

### ■전수자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

- 무형문화재 전수자를 위해 시의 관련 조례 입법을 추진하여 월 전승지원금액, 공연수당, 이수자와 전수자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전수자를 위한 세금 감면과 의료보험 감면 혜택, 초·중·고 대학의 특별지원과 학점인정제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함
- ‘강릉단오제’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수자를 직접 참가시켜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전수자 및 이수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보장하도록 함

### ■단오문화재 복원/정비

- 현재 복원중이거나 복원계획에 있는 문화재들은 복원에 앞서 관련 설화를 고증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살리도록 함
- 현재 여성황사의 장소는 너무 협소하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요구되며,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전 실천계획을 수립해야함
- 대관령옛길과 대관령국사성황당 지역을 역사체험공간으로 구성하여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굴산사지 관련 문화재는 불교적 색채가 깃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남대천과 여성황사, 경방댁 등을 엮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할 수 있는 단오체험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함
- 강릉단오제에 관한 설화 등 ‘스토리’를 바탕으로 관련 문화재 지역과 연계

한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오문화재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 ■유네스코 선정 세계유산 대상 국가지원 특별법 제정

- 국내에서의 세계유산보호사업에서는 문화재청이 국내 정책의 총괄 기획 및 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세계유산을 소재한 지자체는 지역에서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이행, 관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sup>10)</sup>은 정부예산<sup>11)</sup> 대비 점유율이 0.13%에 불과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관리하는 법이나 제도는 없는 실정임(부록 5 참고)
  -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법령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재 유형별로 특성화된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특별법보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법조항을 개선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sup>12)</sup>을 보전할 계획을 수립중이나, 이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내의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무형유산을 별도의 국가지원특별법으로 통합 보존·관리하여 세계유산 지원 및 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함

10) 문화재청 2007 세출예산:5,375억원,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관리예산(문화재청총예산-행정부문예산):2,457억원

11)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2,009,519억원)

## 2) 단오문화관 활성화

- 단오문화관은 시내 중심부, 남대천과 인접하여 경관이 좋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공연장과 전시실, 기념품 판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오제 기간 외에는 활용도가 매우 낮음
- 단오제 기간 뿐 만 아니라 연중 강릉단오를 느낄 수 있는 ‘단오문화관’의 조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아름 교육과 무료로 운영되는 전통음악 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단오문화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그러나 단오문화관내 전시실의 콘텐츠가 볼거리 위주로 되어있고, 공연장의 연중가동률이 매우 낮으며, 부적찍기, 가면쓰기, 장구치기 등 단순 타악체험을 위한 공간만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단오관련 체험공간과 체계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함

### ■ 단오문화관 체험 프로그램 확대

- 현재 단오문화관 체험프로그램은 타 지역과 유사하고 단순하며 체험 장소 또한 협소하므로 정기적인 단오체험 및 일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단오문화관의 공연장 대관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단오제 관련 해설사 상시배치로 방문객들의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함

### ■ 단오문화관의 지역문화공간화

- 단오문화관 앞에 조성된 옥외마당은 장소가 협소하고 체험시설이 부족하며, 블록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의 사고 위험률이 높고, 전통 체험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적인 외형임
- 단오문화관의 모든 시설의 외관은 강릉단오제와 통일된 디자인으로 마감되어야 하며, 별도의 상시 체험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단오제를 넘어 지역의 문화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확대하도록 함
- 단오문화관 인접부지의 단오생태공원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건물배후에 그늘막(파고라) 등을 도입하여 강릉시민들의 ‘복합휴식공간’ 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 3) 단오문화교육

- 단오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는 ‘임영민속연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릉단오제 역사문화 유적답사 뿐이며, 이 또한 홍보 부족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함
- 지속적 단오문화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스피커를 통해 듣는 일방적 해설시스템으로 해설·체험을 연계시킨 쌍방향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 단오답사 프로그램의 상시운영

- 임영민속연구회에서 지원하는 단오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관노가면만들기, 학산오독떼기 공연배우기, 대성황사 및 여성황사 의복 입어 보기 등 적극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간 연계를 추진하도록 함

<단오답사 1>



<단오답사 2>



<단오답사 3>



<단오답사-영산홍 따라잡기>



### 3. 단오문화 콘텐츠 발굴

#### 1) 단오 Culture Movement

- 강릉시민들은 신주미를 내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단오제에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단오제 기간 전후로만 활동하여 1년 내내 단오와 관련된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1년 내내 이루어지는 단오 Culture Movement

-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 및 조직을 활용하여 단오문화를 도시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중심부 옥외광고물에 단오심벌 넣기 운동
  - 연등행차 거리에 연등달기 운동
  - 가정마다 창작 단오등 달기 운동
- 단오문화 음식, 복식 등 일반시민 및 학계전문가를 구축으로 하여 자생적 연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2) 시대의 흐름에 맞는 콘텐츠 개발

- 공간·시설위주의 계획으로 인한 콘텐츠의 부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청소년들 중 47%는 강릉단오제가 의미있지만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강원도민일보 2007. 06. 16),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

#### ■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핸드폰 벨소리·동영상을 이용한 UCC(User Created Contents)·공연 등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단오제 CI, 기념품, 표지판, 관련논문 등에 대한 다양한 공모전 실시하여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 ‘만화로 배우는 강릉단오제’ 처럼 해설체계의 일러스트화로 감각적이고도 친근한 디자인으로 관심을 유도함



## 4. 조례제정 및 조직개선

### 1) 조례제정 및 조직개선

- 2004년에 제정된 운영조례에 의하면 강릉단오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질적 효용이 없음(부록7 참조)
- 유네스코 제출 신청시 ‘Action Plan’ 에 의하면 관리전담기관을 법인화하고, 예산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승지원까지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부록4 참조)
- 강릉시, 강릉단오제보존회(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 (사)강릉단오제위원회(강원도 산하 사단법인), 실행위원회(단오제위원회의 지원) 등 조직이 단일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예산문제 등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무형문화유산지원조례 제정

-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형유산보호에 한계가 있어 강릉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효율적 전승 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보호관리조례 제정’ 을 언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유네스코 제출 신청시 제시하였던 강릉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원조례제정에 대한 실천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액션플랜의 실행 및 약속이행

- 신청서 Action Plan에 의하면 단오제 기금 조성, 국제관광민속제 정례화, 단오제 전승을 위한 지원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2007년 9월 현재 강릉단오제 관리전담기구인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설립(2007. 1)과 강릉시 문화예술과에서 온라인상에서 담당하는 무형문화유산 교류센터(www.iccn.or.kr)를 제외하면 실행된 사항이 거의 없음
- Action Plan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신청시 약속한 사항이므로 유산의 보호 및 가치의 증진을 위하여 (사)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는 ‘강릉단오제 전문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력을 갖도록 해야 함
  - 강릉무형문화유산지원조례 제정 추진(예산: \$ 2,550)
  - 강릉단오제 행사기간 중 국제관광민속제 정례화(예산: \$ 5,680)
  - 강릉단오제 행사 기금조성 등

## 5. 진정한 도시축제로의 발전 도모

### 1) 단오장의 도심이전(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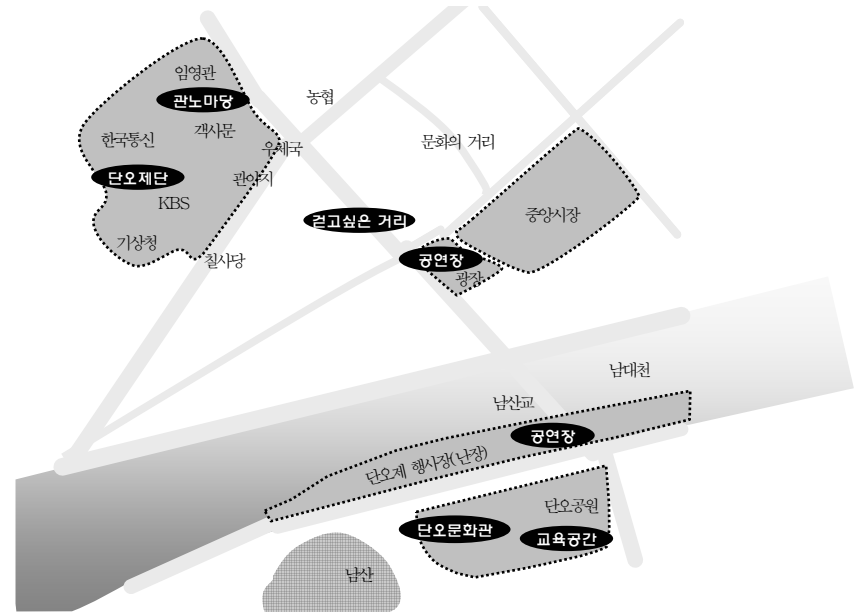
- 일제시대 대성황사가 열린 후 대성황사 중심의 ‘이동형 축제’가 현재의 남대천으로 옮겨지면서 ‘고정형 축제’로 변모되었음
- 공간구성상 외지인의 난장 비율이 약 70%정도로 지나치게 높고 수익을 목적으로 형성되어서 단오와 관련없는 난장이 많으며, 오히려 중심이 되어야 할 제단과 체험촌은 구석에 위치해있는 실정임
- 축제의 수익이 축제장소 뿐 아니라 지역 전체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대천을 벗어난 도심지역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 다른 자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함

### ● 단오제의 원형을 살린 단오장의 장기적 이전

- 단오제의 원형을 살리고자 장기적으로는 대성황사 복원지를 중심으로 하여 단오장을 이전하되 복원전까지는 현재의 남대천 단오장을 제단의 중심성·신성성을 강화하고, 열림과 닫힘이 조화된 공간이 되도록 구성해야함
  - 중기: 단오장의 공간구성 조정
  - 장기: 유적지와 연계하여 단오장 이전
- 대성황사 복원에 따라 대성황사를 중심에 두고 중앙시장, 강릉시청, 견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이동형 축제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함

### ● 강릉도심과 연계하는 공간배치 전략

- 강릉단오제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단오장 및 시설을 도심의 재래시장 및 유적 복원지와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 뱃부의 ‘하나비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축제장에서는 (사)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발행한 쿠폰으로 기념품, 음식, 난장의 잡화상품 등을 구매하고, 강릉도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2) 축제기간의 지속화

- 현재 한달여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강릉단오제를 지속적으로 개최·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전단오-본단오-후단오로 구성함
  - 전단오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연동
  - 본단오는 단오와 관련된 행사로만 구성
  - 난장은 본 단오와 후단오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
  - 청소년 축제 등 단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화합성격의 행사는 후단오에 배치

